순천시, 디지털행정 혁신 대민서비스 향상 박차

24시간 맞춤형 민원응대 챗봇 운영 전자보고 활성화·정보공유 구축

순천시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모바일 기반 맞춤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24시간 맞춤형 민원응대를 위해 지능형 자동상담 '챗봇'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행정·교통·복지·관광분야 등 궁금한 민원사항에 대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텍스트뿐 아니라 지도, 관련 사이트 링크, 이미지 등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챗봇(chatbot)'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다. 종이문서 절감과 일 방식 개선을 위해 행정에 변화도 꾀하고 있다.

행정업무는 전자문서 처리로, 종이보고를 전자보고(전자결재·메모보고)로 전환하고 간부회의와 주요업무보고는 노트북·태블릿PC를 활용한 보고로 추진하며 회의 방식도 회의자료를 태블릿PC에 지참하거나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전자보고 활성화와 정보공유 인프라 조성을 위해 태블릿PC를 전 부서에 확대 보급하고 팀별 노트북을 1대씩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노후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워크 다이어트(Work Diet)를 위해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RPA)한다.

RPA는 인공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을 활용해 업무처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불법주정차 민원자동분배와 코로나19 문자 자동발송 등 단순·반복하는 업무를 RPA가 자동 처리해주는 것으로 사람이 업무를 직접 수행할 때보다 소요 시간을 단축해 신속성이 향상되고 실수나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순천시 디지털정책과 관계자는 "공직 내부의 디지털 행정 혁신과 모바일 기반 대민서비스를 접목하여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정책과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내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동결 순천시, 시민 가계부담 완화

순천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공공요금 줄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상수도 요금은 2%, 하수도 요금은 5%씩 인상해 왔다. 올해는 요금 인상을 유예했다.

올 상·하수도 요금은 2022년도 요율을 적용하며 유예기간은 2023년 2월 고지분부터 2024년 1월 고지분까지다.

순천=배서준 기자

23일 '인문학으로 맛보다' 특강 광양중마도서관

광양중마도서관은 오는 23일 오후7시 '2023 중마도서관 월간 인문학' 제1차 강연 '인문학으로 맛보다' 특강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중마도서관 특화 주제인 '여행'과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인 '음식'을 연계한 인문학 강좌로 시민들의 인문학 소양과 교양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진행을 맡은 이수정 작가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음식 인문학 강연을 진행 중이며 대표 저서는 '인문학으로 맛보다. 와인, 치즈, 빵'이 있다.

강연은 '와인, 치즈, 빵을 통한 유럽 여행'을 주제로 △신화로 배우는 와인, 치즈, 빵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프랑스·이탈리아·독일의 와인 품종별 자연환경 △각 지역 대표 음식에 얽힌 이야기와 맛 등에 대한 인문학 강연과 와인, 치즈, 빵을 시식하는 체험 행사로 진행한다.

'월간 인문학' 1차 강연은 오는 13일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서관운영과(061-797-3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 옥곡면, 정월대보름 한마당

광양시 옥곡면이 지난 5일 정월대보름 민속 한마당 큰잔치를 광양동부농협 옥곡지점에서 21개 마을 주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쳤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200억 규모 '도시바람길숲' 조성

맑은 공기 유입 2025년 완공

광양시가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백운산 등 도시 외곽 산림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권으로 유입시키는 '광양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난 2021년 12월 선정됐다.

1년간 설계비 10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90억 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3년간 시공하게 된다.

광양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시청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산림청과 전남도청 관계 공무원, 시의회 안영헌 의원, 도심숲가꾸기 소오섭 위원장, 관련 전문가, 관계 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바람길숲 분석결과에 따른 대상지 선정, 기본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는 3월까지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4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4월 착공해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전문가와 동행해 바람길숲 대상지 적합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광양시가 도시숲 확대 조성에 앞장서 열섬현상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으로 '감동 시대, 따뜻한 광양' 조성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연중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광양시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월부터 연중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종량제봉투 사용 등 종량제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생활쓰레기를 전량 수거한다.

15일 이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 전용 용기에 납부칩을 꽂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등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은 쓰레기는 전면 수거를 거부하는 수거거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원룸 밀집 지역, 공한지 등 시 전지역에 대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자원순환과에 무단투기 상황반 설치 운영 △기동순찰반(시·광양환경공사) 편성 운영 △시와 읍·면·동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이동식 감시카메라(13대) 활용 △통합관제시스템 활용(무단투기 의심지역 주변 타용도 감시카메라 열람)을 통해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장흥군, 노인일자리 2361명 확대…전년비 8% ↑

장흥군은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를 전년도(2198명) 대비 8% 증가한 2361명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는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사업으로 고령화로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노인일자리 수를 늘리고자 추진됐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12개 수행기관에서 25개 사업단 770개 수요처에서 이뤄지며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억원 증가한 총 84억 2200만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2200명)과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100명),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25명), 전남형(15명)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21명이 참여하게 된다.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는 스쿨존 교통안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9개 읍면 대표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식당 운영과 노인복지관 분관운영을 지원하는 등 2개 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된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초등학교, 보육시설, 노인맞춤돌봄 사업 등 지역사회 내 각종 시설업무를 지원하고 읍면에서 환경정비 및 짚공예품 사업단을 운영해 사라져가는 전통을 이어가는 등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군민이 행복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지역버섯산업 발전방안 논의 장흥군, 생산·유통 협력 모색

장흥군은 '지역 버섯산업 발전'을 주제로 행정, 생산자, 가공업체, 연구기관이 뭉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 버섯산업 발전협의회 사전회의는 장흥 대표 특화작물인 버섯자원 생산과 유통 등 유기적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장흥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종균생산업체, 가공·유통업체, 표고생산자 대표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표고 시설재배 애로사항 해결 △소득안정화를 위한 보조사업 및 지원제도 개선 △표고사업과 타 산업 융합 △선진적 유통체계 구축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고 효율적인 버섯산업 네트워크를 구축과 생산·유통의 체계화 방안을 모색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관광분야 예비 창업자 모집 전남도-전남관광재단

전남도는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관광분야 신규 창업 지원을 위해 3월6일까지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신 관광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광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자 수를 12명까지 확대하고 심사 평가에 따라 창업 지원금을 최소 1000만원~3000만원까지 지원해 창업 분야와 역량,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55세 전남도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로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거나 관광 업종 외 창업 3년 미만인 자로 관광 분야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자다.

모집분야는 △관광·플랫폼 등 기술혁신형 △체험, 테마 관광, 콘텐츠 개발의 체험콘텐츠형 △시설과 물적 자원을 핵심기반으로 하는 시설기반형 △아이템을 활용한 기타형 등 4대 분야다.

전남도 누리집(http://jeonnam.go.kr/)공고문과 전남관광재단 누리집(http://ijnto.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간재 기자